

출산장려 정책·귀농귀어 지원·기업 유치 노력에도… 전남 인구 감소 가속화 190만명 붕괴 ‘초읽기’

1월 말 인구 190만2380명

한달 새 1534명 감소

출생이 없는 읍·면 6곳

광주도 5년간 1만7974명 유출

전남의 인구 마지노선인 190만명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 말 200만명이 붕괴된 지 13년만이다.

출산을 제고, 청년층 유입을 위한 일 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전남이 내놓고 있는 ‘인구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사망률이 높아지고, 조선업 등 기반산업의 쇠락으로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도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남도의 인구는 190만2380명으로, 지난해 말(190만3914명)에 비해 1534명이 감소했다. 전남은 2015년 190만899명으로, 지난 한 해동안 5082명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광주는 2015년 147만2199명에서 2016년 말 146만9214명으로 2985명이 감소했다가 올 1월 369명이 늘었다.

지난달 전남의 경우 출생 1098명, 사망 1400명으로, 자연적으로 302명, 전입 7773명, 전출 9040명으로, 사회적 인구 변동이 1267명 각각 감소했다. 자연적 인구 감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았고, 강원(-290명), 전북(-288명), 경북(-181명), 충남(-8명)과 함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렀다. 초고령화로 인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도내 322개 읍·면·동(출장소

포함) 가운데 출생자 신고가 전혀 없는 곳은 고흥 도양읍시산출장소, 화순 청풍면, 장흥 유치면, 영광 낙월면안마출장소, 진도 조도면 거차출장소, 완도 청산면모도출장소 등 6곳이나 됐다.

전남도는 지원금 지급 등 출산을 제고 정책과 함께 귀농귀어 지원, 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선업 침체 역시 직격탄이 됐다. 산호중공업 등 조선업체가 집적돼 있는 영암은 지난 1월 5만6877명으로, 지난해 12월(5만7045명)에 비해 168명이 줄었다. 지난 2015년 12월(5만8137명)보다 1260명이 주민등록을 옮겨갔다.

철강산업의 메카인 광양 역시 지난 1월 전출이 2309명인데 비해 전입은 864명에 그쳐 1445명의 인구가 빠져나가 전국에서 가장 순유출이 많은 기초자치체에 뽑혔다.

행자부가 지난해 전입 신고 이유를 분석한 결과 직업이 3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가족(28.2%), 주택(24.9%), 교육(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구 순유입이 많은 시·군·구 30개 지역에는 11위 순천(971명), 16위 나주(691명), 23위 광주 광산(467명)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광주시에서 지난 5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약 1만8000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통계청 인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광주시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1만797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828명, 2012년 2564명, 2013년 3049명, 2014년 2983명, 2015년 3382명, 2016년 4168명으로 매년 순 유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내 무단횡단 교통 사고
중심사업구역 인근 최다 ▶7면

新팔도유람 - 경북 의성
제 7회 세계 연축제 열린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박대통령 운명 3월 10일께 결판

현재, 탄핵 심판 24일 변론 종결…3월 초 선고 가시화

특검, 수사기한 연장 신청…法, 靑 압수수색 신청 각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 가시화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등 탄핵 특검 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

달 10일께 결론 날 것으로 유력시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은 앞으로 20일과 22일 두 차례가 더 남아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은 22일로 마무리하고,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앞서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지

급까지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최종 변론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4일에서 바뀐다고 해도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대략 2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종결 후 10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최종 변론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내달 10일을 넘기는 건 쉽지 않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월요일인 3월 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난달 말 박한철 전 임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와함께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법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한편 특별검사팀이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상 집행 불응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이 사안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낼 수 있는 ‘기관소송’ 대상으로 보아 하는데 그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것이 5·18 때 코브라 헬기에서 쏜 벌컨포 탄피”



16일 광주 5·18기념재단에서 김양래 상임이사가 김모(62·나주시)씨에게서 최근 기증받은 탄피(광주일보 2월 15일자 1·6면)를 들어보이며 “5·18당시 광주에 투입된 코브라 헬기에서 쏜 벌컨포 탄피가 유력해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M 61 벌컨포 탄피로 보이며 광주시를 통해 요청하면 감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미래들’ 을 가을 광주 전역에 ‘미래’ 디자인

9월8일~10월23일 열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제7회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8일~10월23일·이하 디자인비엔

날레)가 ‘미래들’(Futures)을 주제로 가을 광주 전역을 미래 디자인 세계로 초대한다. <관련기사 16면> 광주시와 (재)광주디자인센터는 장동훈 총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 주제 및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사는 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본전시·특별전을 나눠서 개최하고 광주시립미술관, 송정역 등 디자인 핫스팟에서 특별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약 45개국 디자이너들을 초청할 계획이며 방문객 20만명 수준 규모로 행사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디자인센터가 추

진한 국내외 디자이너와 광주업체들과의 협업 작품인 ‘산업화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여 산업화에도 중점을 둔다.

그밖에 5·18민주광장 등에 미디어아트와 디자인, 실용 기술이 접목된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는 이달까지 큐레이터를 선정하고 오는 4월 참여디자이너, 참여기업 확정, 5월에는 행사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거제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 2차 신입생 추가 모집

졸업생 취업률 88.2% !! 전국 330여개 대학 중 최상위!

(2015 졸업생,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학생 1인 평균장학금 50% 혜택

기숙사 100% 수용 가능

2017학년도 졸업대상자

대우조선해양(주) 취업약정 18명



■ 모집기간

• 접수기간 : 2017. 1. 16(월) ~ 2. 28(화)

■ 세부내용 : 거제대학교 홈페이지 참조(www.koje.ac.kr)

■ 입학문의 : 055-680-1507, 1510



조선업황 ‘2018년부터 신조선 발주 회복세’

대우조선, 7천억 LNG선박 수주

2016.12.18 17:48:19

수주 거품에 시달리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LNG-FSRU(부유식 액화천가스 저장·재기화 설비) 1척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연말까지 막판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 마란리쿠시그룹 자회사인 마란가스(Maran Gas Maritime INC.)로부터 17만3400t 규모의 LNG-FSRU 1척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6월 발주 예정인 2척의 일반 LNG선(용선)까지 포함하면 수주 금액은 총 7000억원에 …

대우조선해양(주) 정성립 대표이사
“현재 세계 경기 불황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조선산업은 다시 세계 정상에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우조선해양이 운영하는 거제대학교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강인한 생존력을 갖춘 무적함대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정성립

